

소록도 사람들 문화로 세상과 마주서다



김영설 작 '소록의 바닷가'

주민들 직접 쓰고 그린
시·그림·서예 작품들
100년만에 바깥 니들이



장규득 작 '마을 풍경'

고흥 남포미술관 17~31일 해륙예술회·원미회 교류전

“소록도 주민들은 지난 100년 동안 사회와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외부에서 전시하며 세상과 만날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소록도가 잊혀지지 않기를 예술을 통해 사람들 기억에 남겠습니다.”

한센인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고흥 소록도는 지난 100년 간 외부와 단절된 채 존재해왔다. 의학이 발달하며 한센병은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완치된 환자들도 많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은 있었다.

소록도 주민들이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17일부터 31일까지 소록도 해륙예술회와 순천 중전·원로모임 원미회 교류전 '경계를 넘어 마주보다'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양단체 회원 26명이 참여해 시, 그림, 서예 등 작품 총 52점을 전시한다. 그동안 소록도박물관 등에서 소규모 전시를 연 적은 있지만 섬 밖에 진행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다 사슴이라는 뜻을 지닌 해록(海鹿) 예술회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주민들이 지난 4월 결성한 소록도 최초 예술단체다. 강성봉(78) 회장을 비롯해 고귀환, 김기준, 김영설, 김용하, 김원용, 류승열, 장

규득, 한광희 등 양단체 주민과 광형수 남포미술관장, 박승규 본병원 외과과장, 이근성 소록도 직원이 함께한다.

회원들은 작품 활동을 하며 마음을 치유하고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경남 출신 강성봉 회장은 1946년 어머니를 따라 소록도로 들어왔다. 완치된 이후 섬 밖으로 나가 한때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예술인들과 친분을 다지기도 했었다. 강 회장은 “소록도에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연주를 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모아 섬 밖에서 전시를 열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예술회는 광 관장이 지난 10년간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한 결과이다. 2005년 소록도 벽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그림·도자기 등 미술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주민들은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끔은 자신감이 들었다.

고문 겸 자문위원 관 관장은 “벽화프로젝트 당시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주민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며 점점 마음을 열었다”며 “소록도 100년을 맞아 섬 밖에서 전시를 열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전시 주제 '경계를 넘어 마주보다'는 소록도 주민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단체를

초청해 함께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로 소통하겠다는 목적이다.

김영설 작가는 소록도 인근 바닷가를 캔버스에 옮긴 '소록의 바닷가'를, 장규득 회장은 소소한 주변 풍경을 통해 안식을 전해주는 '마을 풍경'을 출품한다. 성치 않은 몸으로 꼼꼼히 작업한 결과물이다.

강 회장은 주민들과 등반했던 지리산 노고단에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 '노고단'을 전시한다.

또한 서예가 고귀환씨는 몽툰한 손에 붓을 매단 채 작업한 '평화의 기도'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해륙예술회원들이 대형 종이에 휘호를 쓰던 원미회원들이 그림을 그려넣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일부러 고흥이 아닌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원미회를 초청하며 밖으로 나가 세상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원미회 김덕희 회원은 '고향의 봄', 김만옥 회원은 '얼쭉 한마당'을 해륙예술회원들 작품과 함께 배치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주민 평균 나이가 80에 가깝고 더이상 발병도 안하니 소록도는 30년만 지나면 흔적만 남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 3월에는 제주도에서 전시를 여는 등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로서 소록도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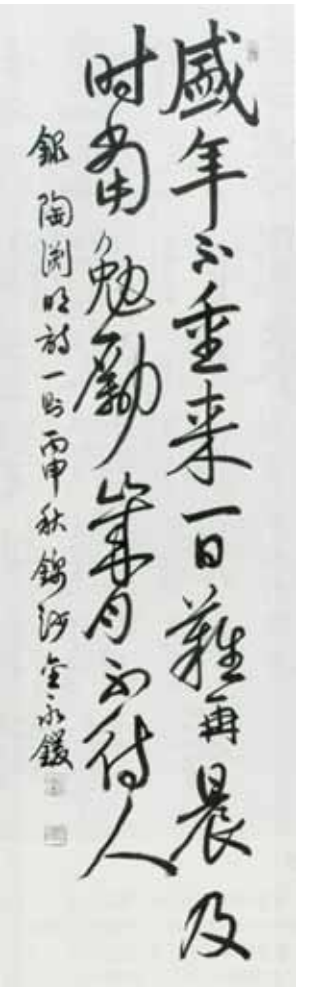
전남도·시군행정동우 22일까지 서예전시회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방행정동우회 전남도지회(지회장 박재순)가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5회 전남도·시군행정동우서예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총 37명이 참여해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다채로운 서체를 선보인다. 전남행정동우회 서예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씨는 도연명시를 출품했다. '盛年不重来 一日難再晨 及時當勸學 歲月不待人'(성년부중래 일일재난신 급시당면려 세월부대인)을 통해 현재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강동민 회원은 이항이 최치원이 머물렀다는 마산 월영대에 올라 지은 시 '월영대를 전시한다. '늦은 나무 기이한 바위 푸른 바닷가, 고운이 노닌 자취 모두 연기되고 말아...' 등 옛 시가 지닌 담백한 맛을 선사한다.

그밖에 충심과 의기를 이야기하는 '충심의기(忠心義氣)', 그림과 함께 매화 감상 정취를 담아낸 '매화향' 등을 만날 수 있다.

박재순 회장은 “국가발전은 위해 노력했던 회원분들이 정년퇴직 후 정진한 서예작품을 전시하며 다가오는 정유년(丁酉年)을 맞이하는 자리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3639. /김용희기자 kimyh@



김영환 작 '도연명의 시'



광주여성재단 23일 등 만들기 체험 행사

2월 10일까지 미술전도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재단 8층 여성전시장에서 시민예술체험프로그램 '새해 소망 담은 한지 등 만들기'(사진)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재단 내 여성전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 '그,女子的 시간'의 일환이다.

재단은 다양한 여성의 삶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미술전 '그,女子的 시간'을 열고 있다. 내년 2월10일까지 진행될 전시에는 전현숙, 박수만, 윤세영, 이선희

등 4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윤세영·이선희 작가와 진행한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전시 관람을 통해 '여성의 삶'을 공유할 계획이다. 체험행사는 한지로 등을 제작한 뒤 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고 붙여 꾸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gjwf.or.kr)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문의 062-670-05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국악제 수상자 함께 송년 공연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송년국악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임방울선생의 송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전통국악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방울

국악교실 수강생과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가 함께 꾸미는 무대다.

제22회 가야금병창 국제대콩쿨에서 수상한 전현정씨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판소리반은 '수궁가' 중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세상으로 나오는 대목'을 들려주며 무용반은 입춤, 장고반

은 합주, 민요반은 '대평가', '신백노래'를 선보인다.

또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준명 명창이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 김찬미 명창이 국장 임방울선생의 애장곡 '쑥대머리'를 들려주며 박종호씨 등이 특별 출연, 신명과 해학이

넘치는 '어서와 나무꾼' 단막창극을 공연한다.

그밖에 김한솔의 설장고, 이유리의 가야금병창(호남가), 김승호 외 3명의 기악연주(아리랑연곡) 등 수상자들 무대도 이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상설전시관

World Sculpture Center (Museum) (구, 카톨릭대학 뒤 관현전 18)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쉐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풍의 하얀 **쉐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쉐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벨리체 승마클럽	가제 마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프렌즈) 리조트 및 4가지 유체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가림 신규회원 특별혜택	가림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주말, 선수가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대상 회원 요금의 50%	대상 회원 요금의 50%

본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